

교회와 한국 통일

(1) 일반적인 상황

제 2 차대전 후에 바로 시작되었던 동서의 이념적, 국제적 냉전이 50 년대 말기를 피크로 하여, 60 년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 주었다. 이념적인 격차보다 경제적인 격차가 인류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제 3의 세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다. 제 3 세계는 이념적인 동서의 긴장을 차원 높은 지양을 함으로써 세계의 미래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60 년대를 발전의 10 년이라 하면서 유엔과 또 이에 관련된 세계 기구가 경제 균형을 둘러싼 각가지 시도가 전개되었으나 아직껏 두드러진 성과는 보지 못한 것이다. 세계의 긴장이 이념적인 동·서 문제로부터 경제적인 남북 문제로 전환되어진 것이 지난 10년간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격변의 템포가 가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세계 교회 안에서 도 발전이라는 문제의 성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현재대로의 사회 구조 및 세계 경제 구조를 가지고서 정말 경제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 정황 속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도 새로운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세계 공동체 안에서 발전되는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통일의 전략과 목표 달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안보 문제를 둘러싼 통일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를 다룬 문제가 70년대의 큰 과제라고 하는 것이 금년 초부터 우리 나라 매스컴의 주제였던 것이다. 더우기 금년 8·15 성명은 한국 통일을 위한 새 활로를 보여준 중대한 성명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민족적 과제를 푸는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마는, 그 평화의 개념 자체를 어떤 정신적인 기반 위에서 정리하여야 할 것인가? 또 국토 통일이란 잃었던 실지를 회복하고 이사짐을 꾸려 옛 고향을 다시 찾아 간다는 그러한 안이한 기대 속에서 가지는 꿈이 아닌가? 적어도 앞으로의 국토 통일의 문제가 단순히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들의 단순한 인기 전술에서 무책임한 제의를 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통일 문제는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할 전국민적인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들의 맥박과 고통에 예민한 정치가들의 폭 넓고 긴 안목으로 보는 방향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는 경륜을 피력할 때, 그 정치가의 발언이 비로소 우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방향 제시와 경륜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상황을 앞에 놓고 세계 정세 변화에 대해서 기민한 반응을 보여 주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와 가까운 맹우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조언자에 불과

하다. 그러기에 통일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맡겨 주신 역사적인 과제요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제는 책임, 정직,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용기를 가지고 인내와 노력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2) 평화, 전쟁의 문제

한국의 통일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강대국 사이의 전쟁의 결말로써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일단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망은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며 또한 현 국제 정세로 보아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강대국들의 전쟁 덕분에 (2차 대전과 같은) 뜻밖에 해방을 받은 전례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그런 전쟁이 생겨서 이번에는 한국의 완전 독립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백일몽과 같은 환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엄격하게 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남의 힘에 의지한다는 약점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통일은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전제를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자주적인 통일을 모색하는 전략과 방법에는 국민 각자가 치루어야 할 숭한 희생과 훈련이 따르게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자기 희생과 생활 훈련을 기피하지 않는 정신적 자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희생과 훈련에는 먼저 사고의 치밀한 훈련과 극기적인 조절이 일차적인 조건이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 의타적이거나, 또한 자아 도

취에 빠지거나 또는 막연한 기대나 자포자기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통일을 위한 자기 훈련을 하기가 어렵다. 절제와 조화를 이룩하는 사고의 훈련이 오늘의 통일 교육에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적인 인간 형성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할 것이다.

우리의 사고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일 것이다. 평화란 결코 무정부 상태나 정적인 부동 자세를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란 언제나ダイナミック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그 평화의 성격과 상태가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평화라는 것은 힘과 힘의 대립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없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부터 위시하여 국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평화를 달성한다는 목적 자체보다도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 정말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란 결코 '대립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평화관이다. 적극적인 평화관은 대립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대립 속에서 대화, 협상을 통해 전인간성을 충족하게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관은 역사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자아의 독백은 광신이나 부질없는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는 입장에서만 가질 수가 있다. 역사의 상대성을 깊이 자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평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살림>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을 넘어서 자기 뜻대로 평화를 성취하신다는 겸손한 신앙적인 자각에서 가지는 역사관이다. 하나님의 화

평은 다만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저들과 함께 나누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화평에서만 미래를 내다 보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역동적인 것으로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비전과 개념이 크리스천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지려면 먼저 크리스천들의 철저한 자아 반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지난 2천 년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나 피압박자들을 해방시키는데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냉담한 율법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착취나 문화적 식민주의의 옹호자 구실을 했으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과 힘을 편협한 개인주의나 독선적인 율타리 속에 억압하려고 해 왔던 것이다. 더우기 오늘의 크리스천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증진시키고 무엇이 이를 가로 막는 사탄의 세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에 빠져있다.

인간의 발전을 말하는 것도 단순한 경제적 성장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간성의 발전을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전인간성의 회복이란 민주적인 정치 이념과 과정 속에서 최대한의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70년대에 전 세계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목표인 것이다.

(3) 선의의 경쟁

지난 8·15 성명에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귀절을 보았다. 이 선의의 경쟁은 민주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적인 생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의의 경쟁을 우리의 국토

통일 문제에 적용해서 생각할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민주 국가인 남한과 공산 북괴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쪽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최선의 것인가를 겨누어 보자는 말일 것이다. 경쟁을 하는 데는 <틀>이 있고, 이겨야 한다는 절대적인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쟁의 핵심은 양쪽이 서로 땀땀하고 두려움이 없는 fairness 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뒤통수를 치는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속임수의 경쟁이라고 할 것이다. 북괴가 설 새 없이 간첩을 보내고 파괴를 일삼는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속임수의 재주에 불과하다. 선의의 경쟁에 따르는 정정당당한 규칙을 무시하고 호시탐탐 이쪽의 허점을 노리는 북괴와 과연 선의의 경쟁이 성립될 수 있겠는지? 아직도 이러한 경쟁의 도전에 대해서 북괴는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망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역사의 추세에 따라서 북괴가 어떤 태도 변화를 하겠는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북괴와의 선의의 경쟁이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으리라는 전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민주적인 생활 양식이 우리 자신의 생활 풍토로 닦아질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선의의 경쟁이 고취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악의의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암면이라고 할 수 있는 술한 부정 식품, 교통 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는 사건, 기업가들이 종업원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일, 교육, 문화계 안에서 벌어지는 명분없는 파벌 싸움, 그리고

밀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들이나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등등, 혼탁한 생활 풍토 속에서 남을 짓밟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세금을 횡령 낭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의 혼탁한 우리 사회 풍조는 아래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정의감을 마비시킬 우려마저 가지게 한다. 이러한 혼탁한 사회 풍토를 경고하고 올바른 지표틀 증거하며 실천해야 할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분열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부질없는 구호와 율법주의로써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굶주린 자들과 억눌린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턱두리를 하면서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밀착되어서 믿음의 이웃들마저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독선적인 자아 도취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대담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교회는 저주 받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들어도 못 듣는 척, 보아도 못 보는 척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의 안식처일 수는 있어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교발은 결코 독선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현실 속에 동참자의 뉘우침과 자책에서 하는 말이다. 무엇이 나라의 분열을 가져 왔으며 무엇이 나라의 통일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크리스천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분단의 현실을 이용하여서 파벌과 교회 정치에 이용했다고 하면, 이 나라의 부정을 외치거나 사

회 풍토의 혼탁을 고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제일 중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 통일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마치 십자군을 지휘하는 장성처럼 기연한 태도로 북방을 가리켜 노도와 같이 정복해 버리겠다는 정신보다도 스스로 이러한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겸허한 태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왜 회개의 정신이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

앞으로 쟁취해야 할 국토 통일은 먼저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내면적 통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토 통일이란 쪼개진 땅덩어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갈라진 동포와 동포,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다. 갈라진 인간을 합치는 데는 개인의 분열된 인격성을 극복하고 인격의 통일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스스로 자신의 화해를 성취 못한 자는 남과의 화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생의 철칙이다. 나 자신의 인격 분열을 통합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겸허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앞서야 한다. 민주적 인간상은 자신의 분열을 극복한 인간상을 말한다. 자신에게는 무한히 너그럽고 남에게 대해서는 무한히 엄격하고 잔인한 인간상이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권을 잡고 있는 한 우리의 통일을 위한 정신적인 자세는 승리보다 패배를 가져오는 자세가 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정신적인 통일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데 교회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견책하는 본격적인 신학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 통합성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 그리고 교회가 걸어온 분열을, 다양성 가운데의

일치와 일치 가운데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 지향시켜서 대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공동 목표를 추구한다는 과정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분열의 현실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 분열이 왜 생겼느냐는 점을 피차가 겹쳐 한 태도로 분석 연구하고, 이러한 분열의 현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는 기풍을 고취할 수 있겠는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이 일만이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정치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이 앞으로 50년 혹은 10년 후에 어떠한 결실을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소망의 역설 속에서 절망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루어지지 못한 일에 좌절을 느끼지 않고 또 내일을 내다보는 것은 신앙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가혹하다고 느껴도 이 심판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속에서 사랑의 섭리를 깊이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절망이 있을 수 없다.

(4) 몇 가지 제안

지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바덴에서 <평화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관심>이라는 주제로 협의회가 모였다. 이것은 Sodepax의 주제하에 일년 이상의 준비를 거친 후에 39개국 대표 80여명이 모여서 가진 모임이었다. 여기서 얻어진 결론 가운데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든다면 첫째로 평화에 대한 제반 인문 과학

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선진국의 재정적 원조를 받아서 평화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며 사회 개발에 전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화는 결코 결정적인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대립과 이해의 충돌 속에서 절제와 조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절제와 조화를 가져오는 데는 우리 자신의 사고의 훈련과 역사적 상대성을 인정하며 이 상대성을 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평을 믿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개념으로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관찰과 분석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적인 훈련, 절제의 생활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 법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든지, 교육이나 문화적인 노력에 있어서 이러한 이념과 생활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기풍이 혼탁해지고 악의에 찬 아귀다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앞으로 있을 국토 통일 또는 국민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먼저 모든 인문 과학 분야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가들과의 개방적인 제휴를 시도하고, 여기서 통일에 대비하는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 체계를 설정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 편에 서서, 한국적인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힘을 키워야 하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파워의 형성은 오직 크리스천 양심이 양양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의 교훈은 산역사이다. 지난 4 반 세기의 역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산 교훈인 것이다. 이 경험과 교훈을 얻는 데는 대단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었다.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갈구하는 정치 체

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 건설의 목표와 형태는 어떠한 것
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 각자는 배웠으며 이를 구
현하는데 참여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부정과 사회 질서의 혼탁을 고발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 비판적인 참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전제 밑
에서 우리 스스로를 견책하고 질제와 훈련을 쌓아나가서 강한 인간,
자신 있는 인간,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으나, 누구를 위해서도 섬
기는 인간상이 최선의 가치로 설정될 때 우리는 북괴와의 만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책임있게 대결 혹은 경쟁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서 통일의 신학, 인격의 통합(심리학)
공통체의 통합(사회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한국 통일을 위한 국가관, 평화관을 설정하는 신학자들의 노력이
아쉽다. 통일을 위한 교육은 결국 이 나라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서
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서느냐의 판가름을 하는 작업인 것이
다.